

사순 제5주일 (다해)

화답송 : 시편 126(125), 1-2ㄴ. 2ㄷ-3. 4-5. 6(© 3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주 - 님 이 - 우 리 에 게 큰 일 을 하 셧 기 에 -

우 - 리 - 는 - 기 - 뻘 하 였 - 네. -

1. 주님께서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 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듯 하였 네.
 2. 그 때 민족들이 말하 였 네.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 나.
 3. 주님 저희의 귀양 살 이,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 리소 서.
 4. 뿌릴 씨 들 고 울며 가던 사람 들,

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.
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셧 기 에 우리는 기뻐하였 네.
 눈물로 씨뿌리던 사 람 들 환호하며 거두 리.
 곡식단 안 고 환호하며 돌아 오리 라

D.C.